

## 힝클리 대관장, 건물 헌납 및 회원 방문



브리감 영 대학교-아이다호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의 헌납식 후 학생과 내외빈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계**속되는 여행 기간 동안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을 포함하여 새로운 건물들의 헌납식에 참석하고 펜실베이니아 주와 유타 주의 성도들을 만났다.

### 고든 비 힝클리 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브리감 영 대학교-아이다호에서 건물 이름을 붙이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제안했을 때 “난처했다”고 말했지만 2002년 10월 22일 아이다호 주 렉스버그에서 열린 새로운 건물의 헌납식에서 겸손하게 그 영예를 받아들였다.

“이 건물의 이름은 여러분이 저에게 보여 주신 신뢰에 부합하도록 제가 합당하게 생활해야 함을 계속해서 상기 시켜주고, 저의 후손들에게는 그들의 조상들을 명예롭게 한 분, 곧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지닌 사람들에게 성스러운 책임을 맡긴 분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라고 새로운 고든 비 힝클리 관의 헌납식에서 힝클리 대관장은 말했다.

릭스 칼리지로 알려졌던 전문 대학에서 최근 학사 학위를 제공하는 4년제 대학교로 승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 대관장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적절한 처우였다.

“매우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은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 신앙을 지닌 사람, 배움을 추구하는 사람, 영광을 지닌 사람, 질서를 중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한 그 분은 자신의 길고 충실한 삶을 선한 일을 하는 데 헌신해 오셨으며, 하나님은 분명히 그 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라고 대관장단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말씀했다.

몬슨 부대관장은 헌납식 모임의 주연사였으며 헌납 기도를 드렸다. 또한 힝클리 대관장의 부인인 마조리 힝클리 자매와 힝클리 가의 가족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 겸 교회 교육감이며 릭스 대학 전 학장이었던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그리고 아이다호 지역 회장단이 헌납식에 함께 참석했다.



몬슨 부대관장은 고든 비 힝클리 관의 헌납식에서 힝클리 대관장을 “신앙을 지닌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다.

연 건평 54,000 평방 피트(5,000 평방 미터)의 이 건물은 일요일 예배 모임을 위한 공간뿐 아니라 교직원 사무실과 강의실로 사용된다.

### 솔트레이크 종교 교육원 건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에 사는 거의 6,000 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종교 교육원 건물의 헌납식에서 영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 없이는 어떤 교육도 완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의 생계를 위해 돈을 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공헌하도록 도와 주는 것

들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무엇인가 신성한 것이 있으며, 우리가 이러한 것을 계발하고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라고 힝클리 대관장은 2002년 10월, 건물의 헌납식에 참석한 많은 청중에게 말씀했다.

“이 아름다운 건물의 설계, 건축, 내장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과 활동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의 영적인 삶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면 그 모든 노력이 아니 그 이상의 노력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라고 교회 교육 기구 책임자인 폴 존슨 형제는 말했다.

유타 대학교 부근에 위치한 이 새 건물은

주간 종교 교육원 수업을 위한 강의실, 학생 활동을 위한 다용도실, 일요일 모임을 위한 예배실, 그리고 종교 교육원 교직원들을 위한 사무실 등으로 사용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와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리 감독, 그리고 버니 마첸 유타 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교회와 대학의 여러 지도자들이 이 헌납식에 참석했다.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 기도를 드렸다.

“이 새로운 종교 교육원은 아름답고 실용적인 건물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배움과 사교, 그리고 봉사를 위한 장소입니다. 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영향력은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의 삶에서 그 건물보다 몇 배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라고 아이어링 장로는 말했다.

“캠퍼스의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이 종교 교육원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솔트레이크 종교 교육원의 학생인 제니 질은 말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35만 명의 학생들이 종교 교육원 프로그램에 등록해 있다.

### 헌츠먼 홀 헌납

힝클리 대관장이 2002년 10월 25일에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존 엠 헌츠먼 장로의 이름을 딴 학교 건물의 비공식 헌납식에 덕 체니 미국 부통령과 몇몇 교회 및 교육 지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워튼 상경 대학 캠퍼스에 위치한 이 8층 건물은 헌츠먼 장로의 전생애 동안의 박애적인 공헌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헌츠먼 홀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워튼 대학을 1959년에 졸업한 헌츠먼 장로는 30년 전에 햄버거를 담기 위한 용기를 만드는 조그만 회사를 시작했다. 그 일을 기점으로 헌츠먼 사는 석유 화학 제품 및 플라스틱 업계에서 세계 제일의 개인 회사가 되



최근 헌납 된 솔트레이크 종교 교육원 건물은 솔트레이크시 지역에 있는 거의 6,000명의 청년들을 수용한다.

었다.

그러나 사업의 성공은 그의 이야기의 절반일 뿐이라고 힝클리 대관장은 헌납식에서 말했다. 그는 헌츠먼 장로가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 고등학교의 학생 회장이었을 때 어떻게 부족한 기금을 사용하여 학교 건물 관리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베타이를 사는지에 대해 말씀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소년 존 헌츠먼이 병들어 오래 살지 못할 소년이 학교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행한 행동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친구들을 떠나 이 소년과 함께 식사하려 갑니다. 그의 친구들도 뒤따랐고 곧 그 소년은 자신이 매우 인기 있는 학생이 되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살아 있는 동안 그의 나날은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또한 헌츠먼 부부가 젊은 부부로서 자신들도 거의 돈이 없던 시절의 경험을 나누었다. 헌츠먼 자매는 매달 자신들의 예산에서 50불이 없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녀가 질문했을 때, 그녀의 남편은 모른 척했다.

“어느 일요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애쓰고 있던 한 미망인이 교회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매달 자신의 우편함에 50달러가 놓여 있는 데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 50달러가 재앙과 생존의 차이를 가져왔습니다.”라고 힝클리 대관장은 말씀했다.

“그는 부자가 되었을 때 박애주의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가난했을 때에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라고 힝클리 대관장은 말씀했다.

체니 부통령은 연설에서 “이 건물에 대한 저의 가장 큰 소망은 이 문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건물의 이름을 딴 사람과 그의 삶에서 보여 준 위대한 성취와 목적 그리고 그것을 정의하는 가치에 대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했다.

### 펜실베이니아 회원들과의 모임

회원들에게 복음을 나누라고 권고하기 위해 힝클리 대관장은 2002년 10월에 미국 필라델피아와 펜실베이니아에서 약 5,000명에게 말씀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와 엠리셀 벨라드 장로가 수행했다.

모임 동안에 힝클리 대관장은 “그 누가 복음의 회복으로 인해 이 세상에 신앙이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이 이곳에 참석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맺은 성약에 기꺼이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일치하는 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의로움 그리고 진리의 길을 걷겠다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또한 얼마나 큰 책임이며 귀하고 값진 기회입니까!”라고 말씀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교회는 회원들의 신앙으로 인해 아주 훌륭한 상태에 있으며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 미국 내의 회원 보다도 더 많은 말일성도가 있습니다. 정말 굉장한 일이지만 아직 충분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우리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저는 우리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소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힝클리 대관장이 회원들에게 복음을 나누라고 권고한 모임에 참석한 필라델피아의 한 가족

사진 제공: 대관장 사무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 여러분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갖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확신합니다. 손을 뻗어 우리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우리가 누군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어느 누가 감동받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도해 보지 않는 한 여러분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 유타 회원들과의 모임

힝클리 대관장은 모처럼 일정이 잡히지 않은 2002년 10월 어느 일요일 유타 주 파크시티에서 열린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다. 짧은 말씀에서 그는 회중에게 축복사의 축복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고했다.

“축복사의 축복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여기에 실제로 축복하고 성임하기 위해 부름 받고 성별 된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은 개개인들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합당한 모든 교회 회원들은 와서 그 분이 회원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힝클리 대관장은 말씀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중에서 부름 받고 선택 받아 여러분을 축복하도록 성별된 축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축복사의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여러분의 생활을 바르고 굳게 하기를 권고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런 후 여러분의

감독님에게 가서 합당하게 추천을 받고 [축복사를 만나기 위해 약속을 하여 그 분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영의 권세로 여러분에게 개인적이고 훌륭한 방법으로 축복하게 하십시오.]라고 핑클리 대관장은 계속하여 말씀했다. ■

기사 제공: 처치 뉴스

## 새로운 성전 준비 책자

**처**음으로 성전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제 소책자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함을 구할 수 있다. 감독이나 지부장은 자신의 엔다우먼트나 인봉을 위해 추천서를 받는 회원들에게 이 소책자를 제공해야 한다. 회원들은 스테이크장이나 선교부장과의 접견을 계획하기 전에 이 소책자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각 회원들이 성전에 합당하게 참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저는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교회 성전을 활용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위대하고 놀라운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 그리고 그곳에서 이전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와 똑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기를 바랍니다.”(“오 내가 천사 되어, 내 마음의 원대로 할 수 있다면”,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6쪽)라고 핑클리 대관장은 2002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말씀했다.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함(36793 320)은 성전의 거룩한 특성,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의식과 성약,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적합한 성전 복장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책자는 65개 언어로 발행된다. ■

## 박에 정신을 불러일으킨 허리케인

제이슨 스웬슨

**허**리케인 이시도어가 유카탄 반도를 덮친 뒤 불과 한 달 만에 허리케인 켄나가 멕시코의 태평양 연안을 휩쓸었다. 교회 회원들은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모였고, 멕시코의 정부 관계자는 솔트레이크시티에 방문하여 허리케인 기간 동안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 허리케인 켄나

허리케인 켄나는 10월에 멕시코의 연안 도시인 샌 블라스를 사정없이 덮쳤다. 폭우, 20 피트(6 미터) 높이의 파도, 그리고 시속 145 마일(235 킬로미터) 이상의 강풍으로 외곽 지역의 거의 모든 나무들이 뿌리 채 뽑혔고, 건물들의 지붕이 날라 갔으며, 셀 수 없이 많은 집들이 수해를 입었다.

교회 집회소와 회원의 가옥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모든 회원들과 선교사들은 무사하다고 보고 되었다. 교회 관계자들은 유능한 신권 지도자인 멕시코 나야리트 지방부의 알바로 아르티가스 아즈카

노 지방부장의 사랑에 찬 노력을 치하였다. 샌 블라스 지역의 유일한 의사인 그는 “밤낮 없이 봉사한 영웅이었다”고 멕시코의 교회 실무 책임자인 테리 제이 스팔리노 형제는 말했다.

아르티가스 지방부장이 신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방부 내의 가족들을 방문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음식과 피난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집과 병원에서 먹을 것과 쉴 곳을 제공했을 때 켄나의 바람도 가라앉기 시작했다.

아르티가스 지방부장은 음식과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멕시코 북 지역에서 제공한 비상 기금을 사용했다. 약 170여 개의 구호상자가 피해를 입은 회원들과 일반인들에게 신속히 전달되었다.

나야리트 지방부뿐 아니라 멕시코의 다른 지역에서도 회원과 선교사들이 복구 작업을 돕기 위해 모였다. “회원들은 서로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또한 집회소로 가서 우리가 일요일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물을 밖으로 퍼냈습니다.”라고 아르티가스 지방부장은 말했다.

비록 샌 블라스 지역의 많은 회원들이 실직했지만, 아르티가스 지방부장은 그 지역이 몇 달 안에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물과 전기가 복구되었고, 장기적인 보건 문제도 없다.

그러나 켄나는 샌 블라스 지역의 회원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남겼다. 이 허리케인은 또한 몇 가지 교훈도 주었다. “이 기간은 반성과 미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기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아르티가스 지방부장은 말했다.

### 인도주의 센터 방문

허리케인 켄나와 이시도어의 피해 복구를 통한 최근 교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함



감사를 표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 관계자들은 11월에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말일성도 인도주의 센터를 방문했다.

정부 특사인 멜바 프리아 여사는 인도주의 서비스 책임자인 게리 알 플레이크 형제와 함께 교회의 광대한 인도주의 센터를 둘러 보았다. 유타 주에 거주 중인 라틴계 교회 회원들과 주 멕시코 영사인 마틴 토레스 형제도 함께 관람했다.

둘리보는 동안 플레이크 형제는 말일성도 인도주의 센터가 세계적인 규모이며, 구호품들을 모아서 분류하고 포장하여 세계 전역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배송해 주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것들을 배우고 생각하게 해준 기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던 방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일성도] 인도주의 서비스와 함께 해야 할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유타를 처음 방문한 프리아 여사는 말했다.

프리아 여사는 말일성도 인도주의 센터가 많은 멕시코 국민들을 포함하여 그 지역의 소수 민족들까지도 도와 주었기 때문에 이 시설에 방문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었다고 말했다. “교회는 회원이 아닌 사람들까지 도와 주었습니다. 구체 프로그램과 가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프리아 여사는 또한 지난 가을 멕시코를

강타한 허리케인 이시도어와 켄나의 복구 작업에서 교회 회원들이 베푼 도움에 대해 멕시코 정부가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2년 11월 9일 처치 뉴스에서 발췌

## 뉴스 초점

필리핀 이사벨라 버고스의 성도들  
네니타 와이 라미레스

**필**리핀 버고스 스테이크의 성도들에게 있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벼를 심는 것과 같다. 그것은 그들의 일상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다.

버고스 산 페드로, 로사스, 아우로라, 칼리귀안, 그리고 타벽은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260마일(420 Km) 떨어진 끝없이 방대한 초원에 위치해 있으며 농업이 경제 활동의 중심이다. 3년 만에 회원 수를 4배나 늘려 2001년 5월에 지방부에서 스테이크가 된 필리핀 버고스 스테이크에는 이러한 지역들이 속해있다. 이 스테이크에는 현재 일곱 개의 와드와 여덟 개의 지부가 있으며, 이 지역의 주님의 포도원에서 놀라운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 성장의 많은 부분은 버고스 스테이크의 로젤리오 수마오양 마틴 스테이크장의 초기 모범에 기인한 것이다. 마틴 형제는 그와 그의 가족이 버고스에서 최초의 유일한 회원



허리케인 켄나의 피해를 입은 멕시코 나야리트 지방부의 회원들을 위해 식품 컨테이너를 준비하고 있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교회 회원들

사진 제공: 인도주의 서비스

이었을 때를 기억한다. 그들은 7마일(12 Km)이나 떨어진 로사스시에 있는 교회에 참석해야 했다. 때때로 그들은 버스 요금이 부족할 때도 있었다. 마틴 형제는 주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이 다만 일요일 교회 모임과 지도자 훈련 모임에 참석하기에 충분한 돈만 허락하신다면 활동적으로 남겠다고 주님께 약속했다.

그래서 농한기에 마틴 형제는 새를 잡아 팔고 다른 농가에 품을 팔아 버스비를 충당할 돈을 벌었다. 또한 그는 지도자 훈련 모임이 막자 시간 이후까지 계속되어 자전거를 빌려 탔던 적도 있었다. 이 용감한 형제는 때때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12 Km나 떨어진 집까지 가기 위해 페달을 밟았다.

선교사들이 버고스에 있는 자신을 방문하기 시작했을 때, 마틴 형제는 그가 그의 이웃들을 교회로 데려온다면 결국 그들 자신을 위한 집회소도 가질 수 있고 그의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는 로사스까지 갈 필요도 없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둘러야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선교사에게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 마을의 작은 집회소에서 가진 최초의 모임에 97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 30명만이 회원이었다. 나머지는 복음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다.

마틴 형제는 비전을 갖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도 그랬다. 농부로서 그들은 온 힘을 다하여 낫질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원리를 이해한다. 그들은 “밭은 이미 무르익어



허리케인 켄나의 강풍으로 인해 파손된 멕시코의 집회소 지붕

사진 제공: 인도주의 서비스



마틴 스테이크장과 그의 가족에게 있어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은 농사일처럼 자연스럽다.

추수할 때로다.”(교리와 성약 4:4)라는 경전의 말씀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 농토에서 곡식을 심고 수확하는 것처럼 사회적인 책임의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 열심히 일하고 풍성한 수확을 고대하는 베고스 성도들을 광대한 농토에서 볼 수 있다. 그와 유사하게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수확, 즉 영혼의 수확 또한 볼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농부로서 연중 모든 날을 논밭에서 보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가장 바쁜 시기는 파종을 위해 땅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축복 받았다고 느낍니다.”라고 그 지역의 다른 성도들의 정서를 전하면서 베고스 제1와드의 레메지오 지 카리아가 감동은 말한다.

“우리는 도시 근로자들이 즐기는 사치품들을 갖고 있지 않지만, 시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파종 후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라고 마틴 스테이크장은 말한다.

그들은 오후에 집회소나 야자 나무 옆으로 만든 오두막에 자주 함께 모여 수확하여 삶은 라키탄(토종 단 옥수수), 튀긴 순무, 또는 말린 수박 씨를 나누어 먹으며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지도자들은 회중에게 복음의 계획을 나눔으로써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을 돕도록 격려한다.(모세서 1:39)

현재 필리핀 베고스의 성도들은 그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복음을 나누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담대하게 복음

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어디서 얻는지 궁금해 한다.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

## 처치 뉴스에서

입양 공익 광고 방송, 게브리엘 상 수상

**말** 일성도 가족 서비스(LDS Family Service)의 입양 홍보용 T.V 광고 방송이 10월 19일 캘리포니아 주 로스 앤젤레스 시에서 2002 게브리엘 상(Gabriel Award)을 수상했다. Bonneville Communications 사가 글을 쓰고 제작한 이 공익 광고는 생모와 아기의 미래 양부모 사이의 대화를 묘사하고 있다. 광고는 “저는 아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라는 말로 끝난다.

국립 카톨릭 언론인 협회인 Unda-USA

의 후원으로 1965년에 시작된 게브리엘 상은 “인간의 영을 고양시키고 양육”하는 훌륭한 방송을 치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특별한 상은 훌륭한 명예를 대변합니다.”라고 말일성도 가족 서비스의 책임자인 프레드 라일리는 말한다. 이 상은 매년 하나의 공익 광고에만 수여된다.

이 광고는 말일성도 가족 서비스에서 입양이 하나의 사랑의 행동임을 홍보하고 마음을 비우고 용기를 내어 입양을 선택한 생모를 인정해 주기 위한 노력의 한 부분이다.

말일성도 가족 서비스는 2000년에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이 공익 광고 캠페인으로 16개의 상을 수상했다. 보니빌 방송사(Bonneville Communications)는 가족과 관련된 광고 방송과 짧은 영상물인 ‘영원한 가족’으로 7개의 다른 게브리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 문손 부대관장, 히버 시 김볼의 집 헌납

브리감 영 대관장의 제 1보좌였으며 말일의 초대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었던 히버 시 김볼은 초기 교회사에서 가장 널리 사랑받고 존경 받는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 이제 김볼 장로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새롭게 복원된 그의 집과 함께 다시 사람들의 기억



모임 후에 함께 모인 베고스의 성도들, 그들은 주님의 사업을 하는 데 하나가 되어 있다.

속에 떠오르게 되었다.

김볼 가의 후손들이 낸 기부금으로 지은 이 집은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바로 이곳이다” 기념 공원의 옛 데저렛 마을 (Old Deseret Village)에 가장 최근에 추가된 살아 있는 역사 현장이다.

현 시대에 히버 시 김볼 장로처럼 대관장 단 제1보좌로 봉사 중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2002년 10월 26일 김볼 가의 많은 후손들이 참석한 헌납식에서 그 건물을 헌납했다.

몬슨 부대관장은 “내가 받아들이는 복음과 구원의 계획은 나에게 있어서 음악과 같습니다.”라는 김볼 장로의 말을 인용했다. (Orson F. Whitney, Life of Heber C. Kimball [1945], 457쪽에서 인용) 몬슨 부대관장은 브리감 영과 히버 시 김볼이 일리노이 나부를 떠나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갔던 때에 대해 말씀했다. 그들은 각기 갖난 아기를 둔 병든 아내를 남겨 둔 채 떠났으며, 자신들도 몹시 아파서 마차에 몸을 실어야만 했다. 그날 그 둘은 몸을 일으키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만세!”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브리감 영 대관장

사진 제공: 필리핀 지역 소서



초기 교회 지도자인 히버 시 김볼 장로는 솔트레이크시티의 “바로 이곳이다” 기념 공원에 새로이 복원된 그의 집과 함께 다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떠오르게 되었다.

에 대한 그의 충성심은 변함이 없었으며, 그의 영혼에는 탐욕이나 개인적인 권세를 추구하는 마음이 자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 몬슨 부대관장은 헌납 기도에서 말했다.

2002년 11월 2일자 처치 뉴스에서 발췌

### 일본의 역사적인 장소에 세워진 집회소

일본에는 117,000명 이상의 회원들을 수용하는 집회소가 많이 있지만, 2002년 9월에 헌납 된 예배당은 이 나라의 100년 교회사를 기리는 특별한 것이다.

요코하마에서 최근에 헌납 된 이 집회소는 1901년 8월에 일본 최초의 선교사들이 숙소를 찾은 장소 가까이 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히버 제이 그랜트 장로(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와 루이스 에이 켈쉬 장로, 호레이스 에스 엔자인 장로, 그리고 앨마 오 테일러 장로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근처 언덕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그 나라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는 헌납 기도를 드렸다.

2001년 100주년 기념식에서 그 선교사들을 기리기 위해 제막식을 한 대리석 동판이 현재 기념비로 불리는 집회소 점탑의 토대가 되었다. 그 집회소는 2002년에 완공되어 일본의 183번째 집회소가 되었다.

약 300명의 회원들과 지역 손님들이 함께한 가운데 북아시아 지역 회장이며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인



사진 제공: 조 록

가족 서비스 공익 광고에서 생모가 예비 양부모를 만나고 있다. 이 광고는 “인간의 영혼”을 고양시켜 준 것 때문에 게브리엘 상을 받았다.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가 2002년 9월 1일에 그 예배당을 헌납했다. 그는 집회소를 위한 장소의 보존과 준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다고 말했다.

그 장소는 “높은 곳”이라는 뜻의 아마테라고 알려진 요코하마의 한 지역이다. 19세 말 그곳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살았다.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 이 나라에 기독교계 학교, 상점, 교회 등을 세운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오늘날 이 지역은 다국적 공동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본거지다.

그 예배당 헌납식에서는 아마테 와드의 보이드 제이 터틀 전 감독과 브렌트 시 로빈슨 현 감독, 그리고 일본 요코하마 스테이크의 유키오 쿠마자자와 스테이크장이 연사로 말썸했다. ■

2002년 10월 26일자 처치 뉴스에서 발췌



사진 제공: 보이드 제이 터틀

아마테 와드의 집회소에는 일본 최초의 선교사들을 기리는 표시인 점탑 기념비가 서있다.

## 2003년 3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동회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3년 3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을 원하면 이 번호의 어린이란 4쪽과 5쪽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참조한다.

1. 어린이들과 구원의 계획에 대해 복습한다. (초동회 6, 제1과 참조) 구원의 계획의 여러 단계를 낱말 스트립으로 만들거나 교재 초동회 6의 제1과에 있는 그림들을 복사한다. 낱말 스트립들을 교실 여기저기에 놓는다. 어린이들에게 낱말 스트립이나 그림을 놓게 한 후 순서에 맞게 세운다. 또한 자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역할을 할 어린이들을 간단히 분장 시켜준다. 이 가족을 지상 생활 표시 앞에 서게 한다. 다른 어린이 한명은 전세 표시 앞에 서게 한다. “나 하늘에서 살았네”(친구들, 1999년 4월호, 5쪽)를 부른다. 지상의 가족에게 오는 축복에 대해 토론한다. 전세에 있는 어린이를 지상 생활 앞에 있는 가족에게 오게 한다. 어머니 역할을 맡은 어린이가 가족이 주는 사랑을 보여 주기 위해 아기 담요로 그 어린이를 감싸게 한다. 가족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지상 생활을 마치는 것은 계획의 일부를 설명한다. 할아버지나 할머니 역할을 맡은 어린이를 지상 생활에서 영의 세계로 옮겨가게 하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가족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느끼는 슬픔과 그분의 영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앞으로써 느끼는 화평에 대해 이야기한다. 성전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구원의 계획에서 구세주의 역할에 대해 토론한다. 한 어린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들고 부활 표시 앞에 서게 한다. 부활절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각각의 어린이가 옳은 것을 택할 때

어떻게 그들이 해의 왕국에 들어 가기에 적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찬송가, 187장)를 부른다. 구세주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감사에 대해 간증한다.

2.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자질들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는다. 비슷하지만 다른 두 개의 물건, 예를 들어 크기가 다른 두개의 공, 색이 다른 책들, 또는 다른 종류의 신발 등을 구한다. 첫번째 시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림과 어린이의 사진을 놓는다. 함께 나누는 시간 전에 물건들과 사진들을 교실에 숨겨 둔다. 어린이들이 돌아가며 그 물건들과 사진들을 찾아 내게 한 후 그것들을 맞춰게 한다. 공들은 크기, 색깔, 또는 목적이 다르지만 동시에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지 토론한다. 공은 둥글고, 구르고, 튀는 등의 성질이 있다. 다른 물건들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어린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점은 무엇이고 비슷한 점은 무엇인지 토론한다. 구세주의 성품 몇 가지를 복습하고, 각 어린이들이 이러한 성품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그런 성품들을 강화해 주는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3.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해심을 가질 때 각자 그들의 가족을 도울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이해심을 구했던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간단히 나눈다. (열왕기상 3:5, 9~12 참조)

이해심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토론한다. 하트 모양의 종이에 다음과 같은 가족과 의 상황에 대한 사례(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999], 161~162 참조)를 적는다. (1) 남동생이 여러분의 퀵보드를 타다가 사고로 팔을 다쳤다. 여러분은 이해심이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2) 어머니께서 여러분의 여동생을 학원에서 데

려 오시느라 저녁 식사 준비가 늦었다. 여러분은 이해심이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3) 여러분의 친구가 같이 놀라고 한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오신 아버지가 뜰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은 이해심이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트 모양의 종이를 용기에 담는다. 어린이들이 돌아가며 용기에서 사례를 고르게 한 후 그것에 대해 토론한다. 가족에 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어린이들이 한 주 동안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봉사할 행동들을 쿠폰으로 만들게 한다. 그 쿠폰을 가족들에게 주거나 소책자에 끼워 둘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부자리 펴기, 설거지, 식탁 차리기, 한 시간 동안 아기 보기, 어린 동생에게 책을 읽어 주거나 숙제 돕기 등과 같은 봉사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나누게 한다.

4. 노래 발표: 가족 사진 하나를 확대한 후, 그 사진을 가로로 띠 모양이 되게 여러 개로 자른다. 그 띠의 뒷면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찬송가 187장)의 가사를 한 줄씩 적는다. 후렴구는 적지 않는다. 그 조각들을 순서에 상관없이 글씨가 있는 쪽이 보이게 교실 여기 저기에 놓는다. 그 노래를 부르고 어린이들이 아는 부분은 함께 부르게 한다. 어린이가 그 노래의 첫 번째 줄을 찾으면 그것을 칠판이나 벽에 붙이게 한다. 노래를 계속 부르다가 어린이들이 확실히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줄이나 가사를 반복해서 부르기를 위해 멈춘다. 그들이 그 노래를 순서대로 찾게 한다. 가사가 순서대로 맞으면 그것을 함께 테이프로 붙이고 뒤집어서 완성된 사진을 보여 준다. 어린이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간증한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회원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언어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고 1절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다. ■





# 11번 소식을 전할 차의 모습이 난 위에서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전국 청년 지도자 훈련 모임

전국 청년 지도자 훈련 모임이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대전 동구 청소년 훈련원에서 열렸다. 80여 명의 독신 회원 연령 지도자들과 여러 신권 지도자들이 함께 한국 교회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었던 3일 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청년 지도자

“여러분의 능력에 한국 교회의 발전이 달렸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회를 여는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민혜기 장로 말씀의 서두이다.

실제로 대회에 참가한 독신 회원들은 전국 종교 교육원 임원들과 각 스테이크 지방부의 독신 회원 대표, 청소년 회장단으로서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 이들은 한국 교회의 미래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청소년과 독신 회원들을 이끌고 가르치는 임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 도전 받는 청년 지도자들

우리의 청년 지도자들은 부름을 수행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도전 이라고 정의했다. 이들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도전의 속성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다. 또한 도전을 잘 해결한 사례들도 발표되었는데 서울 남스테이크의 남경희 자매가 독신 회원 모임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했던 경험을 이야기했고 서울 강서스테이크의 이옥순 자매는 청년 회장으로서 부름을 수행한 경험을 나누었다.

##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

어느 모임보다도 한국 교회의 신권 지도자들이 많이 참석한 모임이었다.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과 전국 종교 교육원 교사들과 대전 선교부장이 청년 지도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지지했다. 특히 질의

응답 시간과 개별 토론 시간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고민과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며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마지막 날 방문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요시히꼬 기꾸찌 장로는 모든 참석자들이 선교 사업에 동참할 것을 권고했다. “여러분이 원하면 선교사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회원인 친구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회가 끝나면 각자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독신 회원들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찾아 가십시오.”

## 힐리맨 봉사들의 함성

기꾸찌 장로의 격려와 말씀 후에는 청년 지도자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

“제가 지도자라는 것을 깨닫고 긴장감을 느끼며, 하나님을 위해 더욱 봉사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인천 스테이크 장현 형제) “이곳에서 제가 더 크게 빛어 질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을 대할 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대구 스테이크 이형관 형제) “저는 선교사로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겠지만, 결국 가족을 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부산 스테이크 김순자 자매) “혼자 부름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 사항을 알고 계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광주 스테이크 윤나경 자매)



#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2002년에 많은 개종자를 배출한 단위 조직  
-서울 강서 스테이크 김포 와드

이달에는 2002년에 많은 개종자를 배출한 단위 조직인 김포 와드의 선교 사업에 대한 간증과 경험을 전한다.

## 화이트 크리스마스

2002년 12월 24일 김포 와드 회원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았다. 김포 와드에서 두 가족의 침례식이 있었던 것이다. 하얀 빛깔의 침례복을 입은 8명의 침례받는 개종자와 4명의 선교사는 김포 지역에 소복이 쌓인 눈송이들이었다. 침례식에 참석한 김두성 형제는 그 날의 감동을 이렇게 전한다. “저의 생애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김포 지역에 일어나는 기적에 감동하고 흥분했죠. 이 지역에 스테이크가 생길 날도 머지않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날 침례식에는 뱅거터 서울 서선교부장 가족과 길정권 강서 스테이크장이 참석하여 영적인 말씀을 전했다. 안식일 모임처럼 많은 회원들로 가득했던 이날 침례식에는 주님의 영도 그만큼 가득했다. 그때 방문자로 참석했던 두 가족도 지난 1월 18일에 침례를 받았다.

서울 강서 스테이크 김포 와드는 2002년에만 초등학교에서 12명, 상호부조회에서 10명, 장로 정원회에서 8명, 청년회에서 1명이 침례받아 총 31명의 새식구를 맞았다. 김포 와드가 2002년에 한국 교회에서 많은 개종자를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두 가지 열쇠가 있었다.

## 선교 사업의 열쇠

김포 와드에서 선교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보다도 잘 준비된 구도자들을 찾은 것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가족 단위의 침례가 많았는데 그렇다고 이를 위해 특별한 목표나 방법을 설정한 것은 아니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회원들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회원들과 선교사들과 함께 가족들이 개종하도록 도왔던 것이다. 이정배 감독은 이를 ‘선(善) 순환적인 선교 사업’이라고 설명한다.



맨 위: 2002년 12월 24일에 침례 받은 윤지영 자매 가족  
가운데: 할아버지인 정석제 형제에게서 침례를 받는 정소연 자매  
맨 아래: 2002년 12월 24일 침례식과 성탄 모임 후 모인 신권 형제들



### 선(善) 순환적 선교 사업

“먼저 침례받은 새로운 회원 들은 충실히 계명을 지키고 교회 부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쳐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선교 사업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와 더불어 선교 책임자와 워드 선교사들의 가족들이 그들과 꾸준히 우정을 나누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1명의 개종자 중에 6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족이 함께 개종했다.

### 또다른 열쇠-사랑

또다른 비결은 김포 워드의 회원들에게 있었다. 회원들은 새로운 회원들에게 기본 가르침을 따르며 자발적으로 우정 증진에 힘썼다. 기존 가족 회원들은 새로운 회원 가정을 방문하고 또한 초대하며 사랑을 나누었다.

특히 복음 원리반 교사로 부름받고 있는 문정숙 자매는 새로운 회원들에게 종교 교육원에 등록하도록 권유하며 그들의 마음에 신앙의 나무가 뿌리를 뻗을 수 있도록 도왔다. “반원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했던 계명은 십일조의 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분들이 이것을 오해 없이 받아들일도록 수업 준비를 더욱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저의 솔직한 생각과 경전의 가르침이 잘 설명된 교회 서적을 찾아 반원들의 의문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으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려는 반원들의 모습에서 문정숙 자매는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문정숙 자매는 평일에도 이들에게 연락하고 가정의 밤에 초대하면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한결같은 사랑을 보였다. 회원들은 선교사들이 구도자와 토론하는 자리에 함께 할 것을 부탁할 때마다 기꺼이 받아들였다. 각 보조조직에서도 새로운 회원이 생기면 침례 받을 때뿐 아니라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였다. 서로 가르치고 격려하며 자신들의 위치를 굳건히 지켜줌으로써 새로운 회원 들이 교회에서 계속 활동하도록 자연스럽게 도왔다.

### 삶의 변화

지난 해 6월에 가족과 함께 개종한 이희선 형제는 딸의 침례식에서 새로운 경험을 했다. “저의 딸 아이는 예전에 얼굴에 물이 조금만 튀겨도 기겁을 할 정도로 물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침례식 때는 온 몸이 물에 잠겼는데도 아무렇지 않아하는 모습이 무척 신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의 복음이 참되다는 확신이 커집니다. 저희 가족은 함께 경전을 읽고 가족 기도와 가정의 밤을 합니

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아이들의 생각을 듣게 됩니다. 어리개만 생각했던 아이들이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복음 안에서 생활하면 승영에 이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개종한 정균교 형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생활을 받아들이며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제 주위 사람들에게 제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키려 하는 교회의 계명들을 설명해서 그 사람들이 저를 교회 회원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일요일에 미라톤을 하던 것을 멈추고 안식일에 운동 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침례받은 이종백 형제는 처음 금식 기도를 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처음엔 24시간 동안 배고픔을 못 참을 것이란 생각을 했지만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견디기가 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올 해 10월에 성전에서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 정말 기쁩니다. 제가 얻은 충만함을 주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배려심을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계속되는 겨울

점점 발전하는 김포 워드에서 회원들은 더욱더 봉사와 희생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다. 올해 김포 워드는 36명의 개종자를 만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회원들은 이번 한 해 내내 하얀 침례복을 입은 개종자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정배 감독은 김포 워드에서 선교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비결을 이렇게 말한다.

“선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려는 회원들의 충직한 소망과 신앙입니다.”



성탄 모임 이후 축복 행사를 하는 청소년과 독신들

#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한국 관리 본부는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행정, 재정, 시설 및 기타 지원을 하는 곳이다. 4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한국 관리 본부는 시설 운영부, 자재 관리부, 재정 기록부, 총무부 등의 부서가 있고 한국 성도들의 복지 사업을 돕는 복지 선교사의 사무실이 함께 있어 그것을 보조하는 일도 맡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에 소재한 배부과와 성전 구내에 있는 교회 출판물 및 성전복 판매장 등 두 곳의 관련 시설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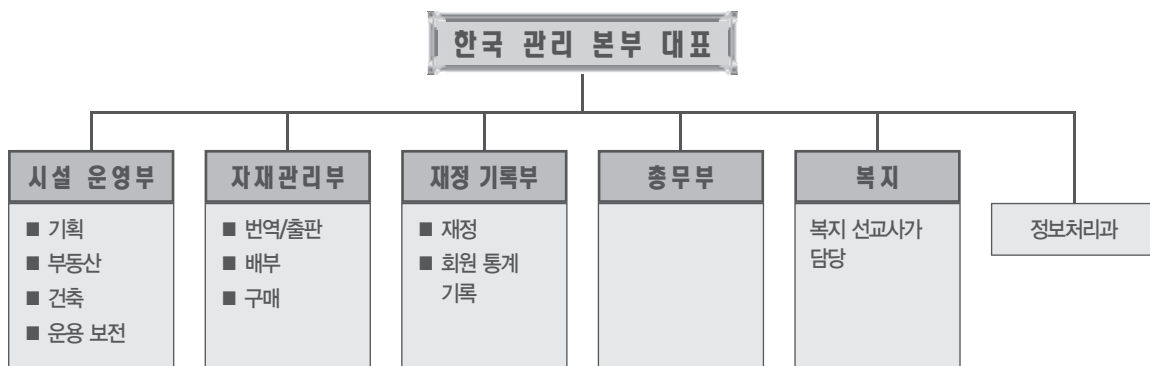
## 시설 운영부

시설 운영부는 교회의 시설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부서이다. 기획과, 부동산과, 건축과 및 운용 보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하고 새로운 집회소를 건축하는 등 시설물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다. 그리고 교회 건물을 운영하고 관리(건물 보수, 비품 관리)하는 일도 이 부서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 자재관리부

리아호나가 만들어지는 부서인 자재 관리부는 번역과와 구매과, 배부과로 구성되어 있다. 말 그대로 교회에서 필요한 자재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며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의 번역과 출판을 하고 이것을 배부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자재 관리부에서 처리한 인쇄물은 본부와 지역의 공문, 새 교재의 출판 및 기존 교재 재인쇄 등 총 346건이 된다. 또한 비품과 교회 여러 조직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구매하고 관리한다.

## 한국 관리 본부 조직도



## 재정 기록부

재정 기록부 산하의 재정과는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곳이다. 십일조와 현금 등의 영수 업무 등 교회의 재정과 회계, 세무를 관리한다. 회원들에게 매년 기부금 납입 확인서를 발급하는 일도 이곳에서 맡고 있다.

회원 통계 기록과는 교회의 각 스테이크와 지방부, 와드, 지부와 선교부 등에서 회원들과 관련된 통계와 기록을 받아 분석하고 관리한다. 스테이크 및 지방부에서 서기 부름을 받은 회원들에게 1년에 두 차례씩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 총무부

총무부는 한국 관리 본부의 직원을 채용하고 훈련하며 관리하는 일을 한다. 또한 재단 법인으로서의 교회 업무를 수행하고 교회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를 관장한다. 2002년의 경우 한국에서 외국으로 부름 받은 23명의 예비 선교사들과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교사 266명의 비자 발급 등 수속을 이곳에서 주관했다.

## 정보처리과

한국 교회 사무실의 모든 컴퓨터 및 정보처리기기,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 힘을 다하여

한국 관리 본부의 업무는 매일 찬송과 기도로 시작된다. 정기적으로 외부 연사를 초청하여 영적 모임을 갖기도 한다. 주님의 사업을 돕는 것이 모든 업무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영을 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지식이자 기술이다. 한국 관리 본부는 4개의 선교부와 17개 스테이크 및 5개의 지방부, 99개의 와드와 50개의 지부 등 한국 교회의 각 단위 조직이 역할을 다하여 주님의 사업을 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고 일본에 있는 지역 사무실 및 미국에 있는 교회 본부와 원활하게 교류하도록 지원하는 중간자 역할을 한다.

## 최윤환 관리 본부 대표



한국 관리 본부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님의 조직입니다. 경전 읽기와 찬송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자기가 맡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주님의 영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저는 이 곳에서 일하게 된 것을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직장을 사랑합니다. 또한 함께 일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한국 관리 본부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 여러분과 함께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송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 본부가 승인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저희의 고객인 성도 여러분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한국 관리 본부는 매년 새로운 사무실 목표하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다음의 2003년 사무실 목표는 전 직원이 참여하여 만든 것으로서 전 직원의 업무 수행 지표가 되고 있다.

## 2003년 한국 관리 본부 목표

**예언자의 권고를 기쁘게 따름으로써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1. 매일 살아 계신 예언자의 권고를 온전히 행한다.
2. 고객의 장점을 자신의 것으로 발전시킨다.
3. 고객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을 영의 인도로 계획하고 행한다.

## 주제 성구

“... 나의 말을 거절하지 아니하면, 저들에게 복이 있고 너희 수고의 열매로 너희에게도 기쁨이 있으리라.”

교리와 성약 6편 31절

## 알려 드립니다.

한국 관리 본부는 전 세계의 교회 실무 사무실이 서비스 센터로 불리게 됨에 따라 지난 2000년 9월 부터 2003년 1월 31일까지 한국 서비스 센터로 개명되어 사용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지역의 교회 실무 사무실이 적은 인원으로 소규모의 서비스 업무에 주력하는 데에 비해 한국 교회 실무 사무실은 보다 많은 인원이(일부 큰 지역 사무실에서 다루는) 광범위한 업무를 집행 및 관리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센터라는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고 교회 본부 감리 감독단이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 서비스 센터'는 2003년 2월 1일 부로 다시 '한국 관리 본부'로 개칭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리아호나 지역 소식 기자 훈련 모임**

2003년 리아호나 지역 소식 기자 훈련 모임이 지난 2월 8일에서 9일 양일간 신촌 와드에서 열렸다. 이 모임에 참석한 전국의 스테이크, 지방부의 기자 15명과 관리 본부 번역과 리아호나 담당자들은 기자 자질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받고 2003년 지역 소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모임을 감리한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고원용 장로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온전하게 되도록 돕는 리아호나의 역할을 말씀하며 독자들의 영성을 높이는 좋은 기사를 쓸 것을 당부했다. 모임에 참석했던 서울 스테이크 기자 광채림 자매는 “선교 사업에서 돌아온 지 이제 2주 정도 지났는데 귀환하고 처음 받는 부름입니다. 처음엔 많이 부담스러웠지만 이 모임을 통해 기자로서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했다. 리아호나 기자들은 일년에 두 차례씩 훈련 모

임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지역 소식을 만들 것을 다짐했다.



모임을 마치고 성전 앞에 모인 고원용 장로와 리아호나 지역 소식 기자들

**리아호나 지역 소식 기자 명단**

**서울 선교부**

강릉 지방부: 김미숙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전승철  
 서울 스테이크: 광채림                  서울 영동 스테이크: 오은용

**서울 서 선교부**

서울 남 스테이크: 황선아                  서울 강서 스테이크: 정춘영  
 서울 북 스테이크: 남경희              수원 스테이크: 이상호  
 안양 스테이크: 박라헬                  인천 스테이크: 조현아

**대전 선교부**

광주 스테이크: 박유미                    전주 스테이크: 진자경  
 순천 지방부: 조영직                    대전 스테이크: 이건지  
 청주 스테이크: 강희택                  홍성 지방부: 한영미

**부산 스테이크**

대구 스테이크: 이섭우                    마산 스테이크: 권순길  
 부산 스테이크: 전건우                  제주 지방부: 김순애

**마산 스테이크 중창 대회**

마산 스테이크는 2002년 12월 19일 스테이크 중창 대회를 열었다. 마산 스테이크에 있는 7개 와드, 지부 회원 100여 명이 참여한 이 대회에서 영예의 1등은 충무 와드가 차지했다. 충무 와드 권영일 감독은 “회원들이 음악을 좋아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합창을 준비하면서 와드 회원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고 회원들 각자 작은 재능을 발휘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라고 우수 소감을 전했다. (하용운 기사 제공)

**서울 강서 스테이크 일일 청소년 대회 및 세미나리 졸업식**

서울 강서 스테이크는 지난 1월 18일 일일 청소년 대회와 세미나리 졸업식을 가졌다. 청소년 대회의 주요 행사였던 미니 MTC에서 청소년들은 선교 사업에 필요한 준비 사항을 배우고 예비 선교사



서울 강서 스테이크 청소년과 역원들

### 서울 동 종교 교육원 물문경 퀴즈 대회

지난 1월 29일 서울 동 종교 교육원에서 동 종교 교육원 세미나리 퀴즈 대회가 열렸다. 서울, 서울 동,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와 서울 영동 스테이크의 일부 와드 청소년들이 참석한 이 대회에서 영예의 1등은 서울 동 스테이크의 염민진 자매가 차지했다. 한편 39명의 청소년이 대회에 참가한 서울 동 스테이크는 단체상을 받았다.(최동일 기사 제공)

로서의 자질을 키웠다. 세미나리 졸업식에서는 40여 명이 수료증을 받았고 김포 와드의 박경완 형제, 부천 와드의 김미선 자매는 4개년 세미나리 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졸업 증서를 받았다. (이경진 기사 제공)

###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초등학교 겨울 활동 모임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초등학교는 지난 1월 11일 드림랜드에서 겨울 활동 모임을 가졌다. 이 날 모임에 참석한 30여 명의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어린이들은 눈썰매를 타는 활동을 했다.(전승철 기사)

### 서울 스테이크 동계 청소년 대회

서울 스테이크는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충북 음성에 있는 흥복 양로원에서 동계 청소년 대회를 열었다. 대회 기간 동안 주로 양로원에서 생활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했던 청소년들은 양로원을 청소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등의 목욕을 도왔다. 이튿날 저녁에는 양로원을 운영하는 이경기 자매 부부와 함께하는 노년의 밤 모임도 가졌다. 마지막 날 집으로 돌아가는 청소년들은 대회 기간 중에 각자 만든 선물을 양로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하며 사랑을 표현했다.(박광선 기사 제공)



양로원 할아버지, 할머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서울 스테이크 청소년들



### 서울 영동 스테이크 노변의 밤

서울 영동 스테이크는 1월 25일에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가 함께하는 노변의 밤을 가졌다. 기꾸찌 장로는 회원들이 선교 사업에 동참할 것을 권고하며 전도용 카드를 활용하고 구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한국 성도에 대한 깊은 사랑을 전했다.(오은용 기자)

### 인천 스테이크 동계 청소년 대회

인천 스테이크는 지난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강원도에서 동계 청소년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 참가한 70여 명의 청소년과 역원들은 설악산 등반과 천곡 동굴 관람 등의 활동을 했다.(박주한 기자)



##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 서울 영동 스테이크

하남 지부 지부장: 김유석(전임: 이용범)  
부산 서 지방부 지방부장: 한정윤(전임: 김영일)  
괴정 지부 지부장: 이종빈(전임: 최창순)  
대신 지부 지부장: 김재영(전임: 강신웅)

#### 광주 스테이크

농성 와드 감독: 하일(전임: 박준호)

#### 대구 스테이크

영천 지부 지부장: 천무철(전임: 박재성)

#### 청주 스테이크

석교 지부가 용암 지부로 명칭 변경

### 진경섭 형제 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 진경섭 형제가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다. 마포구청 도시관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경섭 형제는 2002년 월드컵 관련 유공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2002년 12월 31일 마포구청 종무실에서 이 상을 수상했다. 또한 마포구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힘쓴 공로로 마포구청장을 함께 수여받았다. 진경섭 형제는 현재 신촌 와드 감독단에서 봉사하고 있다.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260기 5명/해외 3명



김수아 자매  
부산 선교부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



정정환 장로  
부산 선교부  
서울 동 스테이크  
의정부 와드



박주영 자매  
서울 선교부  
광주 스테이크  
풍향 와드



오세영 장로  
캐나다 토론토  
동 선교부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



백정환 장로  
서울 선교부  
서울 강서 스테이크  
신월 와드



이자영 자매  
솔트레이크시티  
남 선교부  
서울 강서 스테이크  
김포 와드



전수진 자매  
서울 선교부  
부산 스테이크  
호계 와드



한은경 자매  
도쿄 남 선교부  
청주 스테이크  
흥덕 와드